

Nai's  
newsletter

2025 세번째 소식

◆  
20251231

2025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올 한해는 “감사로 가득찬 한 해” 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싱가포르 와웜 베이스에서의 두번째 DBS (제자성경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어쩌면 지난 10년은 올 한 해를 위한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 말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희는 여러 부분에서 재정비가 필요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모습은 항암치료를 하는 것이었지만, 저희는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자라가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성숙의 과정은 계속되겠지만, 지난 1년은 어쩌면 그런 소원함의 열매를 살짝 맛본 시간 같습니다.

돌아간 싱가포르에서 사역하면서, 무엇보다 저희가 함께 섬기며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어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첫번째 학교를 마치고 나서도 여전히 3명 정도의 지원자만 있었던 상황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날에는 9명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단지 많은 학생이 와서 감사했던 것 보다, 이 9명 중에 8명은 베이스 스태프들이었다는 점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학교를 싱가포르베이스에서 시작하고자 했던 이유들 중 하나는 베이스 스태프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학교를 할 수 있었기에 지난 학교에서 졸업하지 못했던 1명의 학생이 함께 공부를 마무리하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예상치 않았던 변동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갑자기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하게 된 것 뿐만 아니라, 학생들 중에는 이미 계획되었던 아웃리치를 취소하지 못해서 수업을 빠져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 학생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며 진행해야 했던 학교 일정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성령님을 잘 따라가면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 학교 내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졸업을 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즐거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더없이 감사한 일이구요.



다음 학교를 섬기게 될 Vusi David Jama입니다. 저희는 ‘부시’라고 부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람이고, 아내 ‘루트 Ruth’은 싱가포르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 ‘나오미 Naomi’가 있습니다.

‘부시’는 내년 3월에 DTS (제자훈련학교)와 8월말에 DBS (제자성경학교)를 인도합니다. 부시와 루트, 둘 다 놀라운 리더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섬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6년을 앞두고...

다가오는 2026년에는, 지난 기도제목에 말씀드린 대로 에드먼이 지난 2022년에 시작한 공부 (M.div)를 마무리하기 위해 캐나다 밴쿠버에 가게 됩니다 (리젠트칼리지 Regent College). 정말 감사하게도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에서 몇몇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 길을 순직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에드먼의 수업이 1월 5일에 시작되기 때문에 8일에 먼저 출국하게 되는데, 첫 2주 동안 임시로 지낼 수 있는 방도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생활할 2026년의 시간이 저희에게는 담담하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2026년을 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도제목

### 1. 사역

- 위에서 나눈 것처럼 와웜 싱가포르에서 이 제자성경학교(DBS)를 지속적으로 섬길 리더와 스태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부시’와 ‘루트’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 은혜로 섬길 수 있기를, 하나님의 지혜와 기쁨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하나님을 알고자하는 갈급함과 겸손함이 있는 학생들이 모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2. 개인

- 캐나다에 가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생활 패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공부하는 에드먼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저희가 1년 동안 생활할 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재정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기에 적절한 집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희가 맺을 관계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흘러가길 기도해 주십시오.
- 또 다른 상황과 삶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저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며 살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득 문득 지난 학교를 떠올리면, 종종 저희의 마음에 경이로움과 경외감이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저희가 저희의 한계와 약함을 알기에, 그러한 저희와 함께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함께 섬긴 사람들과 학생들로부터 받은 사랑은 저희를 압도시키고 더욱 낮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저희가 또 훈련되고 성장해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고 선하심으로 인한 감사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또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 계시록 1:8).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손에 잡히듯 느껴지는 한 해의 시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드먼 + 한나 드림.